

# GM공장 사태 관련 지역주민 생계보장 총력

## 군산시, 직장폐쇄 실직위기 가정 긴급복지 지원

군산시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최근 GM군산공장 폐쇄발표에 따라 대량 실직위기에 있는 근로자와 관련 업체 직원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

돼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도 구직이 되지 않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맞지 않고 구직이 되지 않았다면 퇴사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는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소득재산 자료만 조사하여 48시간 이내 생계비 지원을 하

고, 사후조사 결과와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준은 4인기준 소득 338.9만원, 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이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이번 GM사태를 고려하여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는 최대한 연장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 이외에도 부 소득자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을 당한 경우, 소득자의 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모두 위기상황에 해당되어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GM공장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긴급복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복지과(☎454-3080)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TF 본격 출범

## 군산시, 정부대응 과제 발굴 초점 10개 분야 6개 TF팀 운영

군산시가 위기에 빠진 지역산업의 구조 개편과 4차 산업 선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TF'를 본격 출범하고 지역여건과 정부정책에 맞는 대응과제 발굴에 적극 나섰다.

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첫걸음으로, 지난 7일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16개 부서가 참여하는 TF 실무회의를 갖고 정부정책과 추진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TF 구성 및 사업 발굴 등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10개 분야 6개 TF팀으로 운영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분야별 TF팀장인 국·소장을 중심으로 지역 R&D기관 및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관련부서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업발굴부터 관련정보 공유, 실행여부 논의, 예산 확보 및 추진상황 점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반적인 대응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관련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에 초점을 뒀 TF를 운영하고, 향후 분야별 세부전략 및 비전을 수립해 특화산업 육성과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장은 "현대중공업 및 GM 사태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지역산업의 구조개편 및 변화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 박물관,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사업 공모 선정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정기문)이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교육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사업은 지역박물관의 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교육운영지원사업에는 10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대학박물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선정되었다.

공모사업에 당선된 군산대학교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당산야, 내 소원을 부탁해!"이다. 군산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군산지역 '당산야'에 담긴 소망의 의미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문 박물관장은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군산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러한 성과들을 지역사회는 물론 다음 세대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10월까지 원도심 내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

군산시가 3월부터 10월까지 원도심 내 문화재를 활용한 '2018년 생생(生生)문화재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관광·교육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는 5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구 군산세관본관과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원도심에 위치한 6개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산의 근대역사 탐방 ▲공감백배 군산역사문화교육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군산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재 감성학교 ▲문화재로 진로를 잡아라 등의 지역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생생문화재



군산시가 3월부터 10월까지 원도심 내 문화재를 활용한 '2018년 생생(生生)문화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군산시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감백배 군산역사문화교육'은 문화유산 이야기꾼 양성과정으로, 오

는 12일부터 15일까지 교육 희망자 20명(선착순 마감)을 모집하며, 교육 이수자는 시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에서 관공역 안내 및 문화재 해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시민 안전·생명 보호·불편 해소 익산시-익산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는 7일 익산시청 상 황실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양 기관은 간담회를 개최해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무협조 미흡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해 양 기관 간 실무 회의를 거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노숙자 처리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치매노인의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안전·보호 정책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사건·사고 등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상호 연락체계 구축 등이다.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점검 갖고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뿐 만 아니라 불편을 해소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산업구조 개편·1000만 관광도시 조성"

### 강성욱 군산시장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강성욱 군산시장 예비후보(군산시의원·사진)가 7일 군산시청 기자실을 찾아 "무너진 군산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6월 13일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비전을 제시하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경제위기

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본사가 없이 공장만 유지되는 군산지역의 산업구조를 건설기계집적화단지 조성 및 미래형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개편하고 지역의 향토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을 세계인이 찾는 1000만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고군산 시위극 설치,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테마파크 조성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근대문화축제를 제안하고 축제 조례를 제정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매년 천만이 찾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마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익산시는 7일 마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하고 맞춤형복지로 주민행복시대의 시작을 새롭게 알렸다.

마동 행정복지센터는 1979년 건축되어 낡고 협소했고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주차장 또한 주민불편을 초래해 새로운 청사 건립이 절실했었다.

이에 지역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코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건축실제 공도를 거쳐 지난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6월 착공을 시작해 2018년 2월 5일 공사 완료했다.

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 1,876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968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였다.

마동 행정복지센터 1층은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로비 및 공용공간이 있고, 2층에는 주민자치위원실, 주민사랑방, 프로그램실, 3층에는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4층에는 주민 체력단련실, 동대본부, 기계실 등이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원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강화는 물론, 다양한 문화수요를 위한 공간까지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www.jjmaeil.com